



내가 그대들의 방과라네!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노동자의 행복과 보람
그리고 상호 존중의 제19대 한대노조

제19-009호

2019. 12. 12.

Tel. 02-2220-1600~1

Fax. 02-2220-1602

URL. <http://labor.hanyang.ac.kr>

Email. nojo@hanyang.ac.kr

보상 없는 착취, 실망을 넘는 분노

대리급 이상 승진대상자 154명, 이 중 승진자 41명. 승진율 27%

선임부장 7/27(26%), 부장 11/49(22%), 과장 10/42(24%)

형태도 피라미드가 아닌 일자형이다. 승진율도, 직위 당 배분도 엉망이다.

일부 그룹에 대해서는 사다리를 걸어차 버렸다. 올라갈 길이 막힌 자는 절망한다. 유리천장은 더욱 단단해졌다.

교육부에서 승진 T/O를 통제하는가?

승진율이 높으면 국고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는가?

지난 수년간 각종 지표에서 우리 한양은 높은 평가를 받았고 상위권 순위에서 지금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고 있다.

국고사업을 수주하려고 밤낮없이 보고서 작성에 매진한 결과, 다른 대학에서 이익을 제기할 정도로 많은 사업을 따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업무 부담은 가중되었고 삶의 질은 하락했다. 그래도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견뎌내 왔다. 고진감래(苦盡甘來), 단지 우리는 그간의 노력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다.

언감생심(焉敢生心) 학교가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허탈과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이런 대접에도 어쩔 수 없이 호구지책으로 출근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든다.

묻고 싶다. 팀제 조직에서 보직 승진도 아닌 직위 승진에 이토록 가혹하게 탈락시키는 이유를. 열심히 일했고 능력이 있음에도 단지 T/O 부족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키면서 무슨 동기로 일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이것이 조직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많은 기대를 걸었던 첫 인사가 동기부여는 커녕 의욕과 사기를 꺾어버렸다. 정당한 대가가 곁여된 채 가중되는 업무, 그것은 착취다.